

중앙동의 지속가능한 재생을 위한 열쇠 '주민' 2020년도 중앙동 마을재생워크숍



2020년도 중앙동 마을재생워크숍



마을재생워크숍 유튜브
영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상단의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바로 보세요~

10월 23일 금요일 2020년도 중앙동 마을재생워크숍이 중앙동살맛터 교육실에서 진행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회 연기되면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중심 형태로 전환 된 본 워크숍은 시·공간의 큰 제약 없이 '살맛나는 중앙동' 사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실시간 채팅방 등을 통해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었다.

워크숍은 강원도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이영기 사무관의 '지속가능한 마을재생을 위한 주민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중앙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김태영 위원장의 '도시재생과 주민협의체의 역할' 그리고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김남옥센터장의 '주민참여에 따른 도시재생의 성공여부' 발제가 이어졌다.

이영기 사무관의 기조강연에서는 경제력과 지속가능성의 연결고리의 중요성이, 김태영 위원장의 발제에서는 주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양보와 주민협의체 참여의 필요성, 마지막 김남옥 센터장의 발제에서는 주민 의견 경청을 통한 거버넌스에서의 풀이 과정을 강조하였다.

잠깐의 휴식시간을 거치며 토론의 장이 열렸는데 기조강연자와 발제자 그리고 도시재생마을학교 1기 수료생 대표 박정애·상민학교 1기 수료생 대표 박정연·어르신마을학교 문화교실 1기 수료생 대표 최근자 까지 각 세대와 신분을 대표하여 문제 제기와 답변을 주고 받았다. 이들의 열띤 토론은 유튜브 채널 <강릉중앙동 도시재생>의 '2020년도 중앙동 마을재생워크숍' 영상으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다.

워크숍은 끝났으나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살맛나는 중앙동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관한 의견 제시와 토론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9월 중앙동 문화의 날 '텃밭 정원에서 소소한 음악회'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소담하게 차려진 음식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노래 소리. 전염병으로 인해 우울해진 마음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앙동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소소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문화의 날엔 특히나 어르신 마을학교 수강생 분들의 활약이 빛을 발했습니다. 어르신 마을학교-어르신 문화교실 1기는 인문학배움터 7강 교육과 연계하여 원예, 가드닝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딱딱한 빈 땅을 어르신들이 직접 일궈내고 가꿔서 중앙동 살맛터 텃밭에 아름다운 텃밭 정원이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이 텃밭에서 난 채소와 허브를 이용하여 아침 일찍부터 차와 음식을 준비하고 찾아오신 손님들을 맞이 해주신 덕분에 파스한 허브 차와 허기를 달래줄 간식으로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눈부신 가을 햇살 아래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노래소리 처럼 중앙동 도시재생에 함께 해주시는 주민들의 참여와 움직임이 중앙동을 더욱 살맛나고 즐거운 마을로 만들어가리라 기대해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소식

따뜻한 커피와 차 한 잔 즐기고 가세요~



낙엽이 흩날리기 시작한 22, 23일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기금 마련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성과 공유회를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드립커피와 동충하초차를 제공하며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알리고 기금 조성하고자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모금 된 기금은 중앙동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살맛나는 중앙동 우리 동네를 위해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중앙동 주민협의체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상시 모집 중입니다*

중앙동 주민협의체 임시회의



주민협의체 임시회의가 25일 저녁7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 저녁임에도 많은 분께서 함께하여 마을에 대한 애정을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본 회의록은 협의체 회원 누구나 네이버밴드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네이버 밴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앙동 음성길 메이커스

음성길 스토리텔링 조별 발표회

중앙동은 과거 강릉의 중심지로 강릉 최초의 주상복합 상가가 들어설 정도로 상권이 좋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외곽으로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상권이 쇠락하고 골목 상권이 약해지는 구도심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릉대학교 15명의 학생들이 도시재생 서포터즈가 되어 중앙동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음성길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에 나섰습니다. 약 2주간의 자료조사와 콘텐츠 제작 회의를 거쳐 10월 17일 조별 스토리텔링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총 3개 조가 저마다 특색 있는 스토리를 발표하였습니다. 현 강릉성결교회 자리의 약국서남을 주제로 한 약국서남 이야기, 강릉의 옛 이름인 명주에서 시작하여 오밤 색과 연결 지은 이야기, 요즘 트렌드인 힐링을 테마로 힐링 테마거리 이야기 등 다채롭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중앙동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앞으로 3주간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토대로 중앙동 투어 루트, 굿즈, 스토리북을 제작하게 됩니다. 재기 발랄한 우리 학생들이 중앙동 마을 관광 콘텐츠 제작을 위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도와 다식 어려운 듯 어렵지 않은!

인문학배움터 8강 :다도와 다식 체험

10월 중앙동 문화의 날을 맞이하여 19일 다도를 하며 다식을 만드는 인문학 배움터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과자인 다식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면서 정말 엄청난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량을 갈고 닦지 않으면 금방 손이 굳어버리는 것처럼 도시재생도 정성과 노력을 가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겠죠. 앞으로 중앙동 인문학 배움터에서 진행하는 수업들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수업의 기회를 드리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도시재생 마을활동가로써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동 인문학 배움터는 더욱더 다양한 수업과 체험으로 주민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텃밭이 예쁜 정원이 되었어요!

인문학배움터 7강 :텃밭정원

인문학 배움터 7강을 총 1차, 2차, 3차시에 걸쳐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중앙동 인문학 배움터에서는 텃밭을 정원으로 조성하는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텃밭정원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합니다. 우리가 키우는 상추, 호박, 고추 같은 작물들로 꽃밭처럼 이쁜 정원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죠. 텃밭 정원은 중세시대 수도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작물들을 기르면서 보기에도 아름답게 가꾸게 된 것이죠. 우리도 집에 있는 작은 텃밭을 이쁜 정원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인문학 배움터를 진행한 주민 다섯분이 팀을 이루어 마을 가드너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날까지 기대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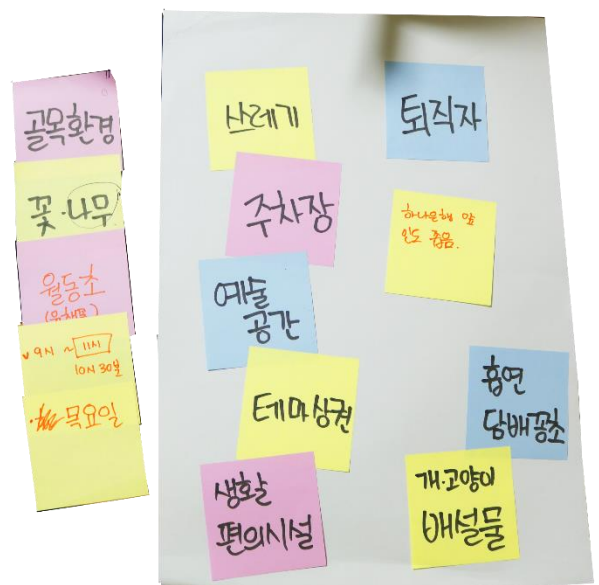


중앙동을 주민 스스로 바꾸기 시작!



도시재생마을학교 1기를 수료한 7명의 활동가가 모여 이름하여 '스스로하기마을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스스로하기 마을학교는 도시재생마을학교의 주민워크숍에서 도출되었던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주민 스스로 해결해가는 프로젝트 동아리입니다.

첫 만남은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고 동아리 만남의 주기 및 일정을 정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주제로 '골목환경', '꽃과 나무'가 선정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이 펼쳐질지 이들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릴레이! 중앙동 주민 인터뷰

- 여섯 번째 주자 : 30년 이상의 시간을 걸어 온 <석천갈비> 사장님 내외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황호상, 이은주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일곱 번째 주자로 [차향기] 사장님을 지목해주셨습니다. 다음 호에서 꼭 찾아 뵈 수 있기를! 기대해주세요!

궁금해요 1. 본인과 석천갈비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석천갈비를 운영하고 있는 황호상, 이은주입니다. 중앙동에서 화장품대리점과 가구점을 운영하다가 경수(목욕)탕 건물을 매입해서 1989년 12월 22일 동짓날 첫 영업을 시작했던 것이 어느 덧 31년이 지나가네요. 시간도 많이 흐르고 인테리어도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윤 보다 손님의 입장을 생각하며 양심적으로 장사하자!' 라는 원칙만큼은 고수하며 석천갈비에서 손님들과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해요 2. 30년 이상 운영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손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어떤 부부가 둘러보면서 들어오더라구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20년 전에 우리 가게에서 선을 보고 부부의 연을 맺은 공무원 부부이더라구요. 그 때는 선도 고깃집에서 많이 봤으니까요. 그런데 불일이 있어 중앙동을 지나다가 아직도 우리 가게가 남아있을까 싶어서 와봤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는 손님 얼굴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추억을 함께 공유해주는 분들이 계시기에 보람되고 감사할 뿐입니다.

궁금해요 3. 중앙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중앙시장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을 중앙동으로 오게끔 만드는 자연스러운 동선이 구성되면 좋겠다 싶어요. 또 상업지구가 확장되어서 손님들의 선택권과 즐길거리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요 4. 마지막으로 이 소식지를 볼 중앙동 식구들에게 한 마디!

이웃 간 인사 잘 하고, 양보하며, 화합하며 함께 살아요~



활력있는 청춘시대를 위한 어르신 마을학교 2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르신 마을학교 2기가 개강하였습니다. 이번 어르신 마을학교에서는 스마트한 삶을 위한 스마트폰 교실과 자신만의 손 글씨와 추억을 담은 캘리그라피 앨범 만들기 수업이 진행됩니다. 지난 어르신 마을학교 1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100% 출석률로 수료가 되었던 만큼, 이번 어르신 마을학교 2기에도 아주 재미있고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령화 되고 있는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고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만나야 하겠죠. 도시재생이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어르신 마을학교를 통해 주민들의 자주적이고 의미있는 삶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중앙동의 유튜버!

중앙동의 볼거리, 맛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알리는 주민피셜 입문과정 수료생들이 기초과정으로 다시 모였다. 입문과정이 오프라인 홍보가 중심이었다면 기초과정은 언택트 시대에 맞는 온라인 홍보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이다.

1강으로 온라인 활동에서 가장 주의해야하는 저작권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 활동이 중요해지는 만큼 본 강의에 한하여 수강생이 아닌 주민에게도 수강의 기회가 주어졌다.

2강 부터는 이미지 표현하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튜버가 되는 과정을 밟는다. 이들의 성장을 함께 기대해주시길 바란다.



중앙동에 이런 곳이?



용도

서양매듭, 동양매듭 뜨개, 인테리어 소품, 작은 액세서리, 출강, 원데이 클래스 등

주소

강릉시 임영로 157번길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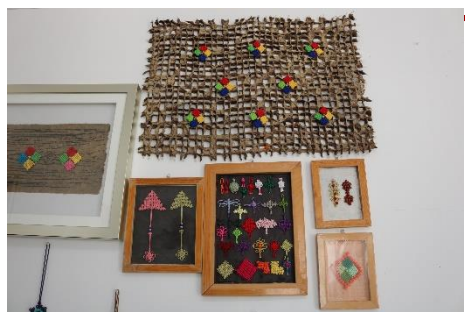
중앙동에 이런 곳이? 여덟 번째 장소는 규방공예 (자수, 바느질, 매듭 장식)를 통한 제품 제작, 상품 판매도 하는 <윤이 매듭>입니다.

윤이 매듭은 79년도에 처음 접했던 매듭의 매력에 반해 뜨개, 동양 매듭, 서양 매듭, 자수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사장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곳에서는 작은 액세서리 소품부터 인테리어 제품까지 다방면에 적용된 작품의 관람과 구매는 물론, 제작 의뢰, 체험이 가능하며 자체적으로 자격증 이수까지 가능합니다.

개인 전시, 커피 축제, 핸드메이드페어, 그리고 오죽헌 명품샵에 작품을 출품할 만큼 현역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장님의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담긴 제품들을 보러 많은 관심 바랍니다.

<윤이 매듭>은 매주 월~금까지 10:00~16:00는 항상 열려 있으나 출강이나 외부 교육으로 자리를 비울 때가 있으니, 걸음 하기 전에 전화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이버블로그매듭향기 #핸드메이드 #치매예방 #전화는언제든환영



문의전화 010. 6378. 8309



살맛나는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특별기사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후기 〈살맛나는 중앙동〉 잘하고 있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서울 SETEC에서 지난 14일을 시작으로 16일 까지 개최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는 도시재생을 통해 파생되는 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보 공유와 산업 관계자들의 교류를 통해 도시재생 생태계 형성과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올 해로 2회를 맞이한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도시재생 관련 업체와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과 인원제한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견학이 불가능해 배움의 장과 교류의 장을 상실했기에 많은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현장의 사정과 동시간에 진행된다는 이유로 많은 참여가 어려웠던 세미나와 포럼들을 <대한민국도시재생산업박람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시 시청할 수 있어 도시재생산업박람회의 효과 확산이라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본 박람회에 중앙동현장지원센터 또한 참여하였습니다.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의 총괄 하에 강원도 권역 10개의 지자체가 모여 춘천, 원주에서 사전 회의를 거치며 공동진행하는 강원도통합부스의 형태로 참가하였습니다. 강원도통합부스에서는 10개 지자체의 사업현황을 담은 책자를 제작하여 강원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였으며, 각 지자체의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품을 대표 기념품으로 선보였습니다.

강릉시는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옥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께 사업의 추진현황을 소개하였고, 강릉 출신 작가 7명의 작품을 모아 강릉을 대표하는 홍보물로 제작하였습니다. 강릉의 아름다운 명소를 일러스트로 담은 엽서와 강릉 두부 지우개 등으로 구성된 홍보물은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관광도시 강릉'으로써 명성을 재확인시키는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최초 지역 통합부스 운영이라는 타이틀을 달며 많은 관심 속에서 운영된 해당 부스는 <참가부스 운영 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도 수여 받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강원도의 명성을 빛냈습니다.

금년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많은 지역 주민간의 교류가 다양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으나 2021년도에는 살맛나는 중앙동 사업지역 주민들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 해는 추진되지 않았으나 도시재생분야에 있어 큰 행사인 '도시재생 한 마당'이 내년에 개최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결과 보고서

에서 시상 내역 발췌

참가부스 현장평가 (13)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2	강원도, 프롬테크포럼
	최우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6	광주, 논산, 안양, 세종, 제주, 울산
	우수상	서울시장상	3	토문건축, 이노스&애니우드, 월드케미칼&태경화학



▲ 강릉 출신 작가 7명의 작품을 담은 강릉시 홍보물

<월간 중앙동> 이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배부처

1.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임영로 131번길 18, 강릉KBS 인근)
2. 중앙동주민센터 (토성로 163)
3.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서부시장 2층 57호)
4. 강릉야행북카페 (서부시장 1층)
5. 지앤지오 말글터 (문화의길 9)
6. 앤 베이커리 (임영로 144, 선거관리위원회 맞은편)
7. 차향기 (임영로164번길 12)

발행일

매월 25일 발행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업무 등을 이유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10월호와 11월호가 그러해서 12월에 발행되었습니다. ^^
앞으로 늦지 않도록 더 노력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그리고 협조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배부처

1.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블로그
<http://blog.naver.com/gnjaur>



2.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ja.gursc.org>

